

2021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당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2년 4월 27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뉴스레터 구독신청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최신 소식과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04 동물자유연대
- 06 한눈에 보는 2021
- 08 숫자로 보는 2021

- 10 활동보고
 - 동물구조와 학대 대응
 - 나눔사업
 - 온센터
 - 정책과 입법
 - 반려동물
 - 농장동물
 - 야생·전시동물

- 26 재정보고



새 정부에서 더욱 발전해나가야 할 동물 정책



5월 10일이면 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토리와 산책하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이미 알려진 반려동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밀짚모자를 쓰고 평온한 자세로 반려묘 핑핑이를 안고 있거나 반려견 마루와 교감을 나누는 사진에 많은 이들이 공감의 응원을 보내었습니다. 이렇듯 반려견과 산책하고 고양이와 교감하는 대통령은 서구에서만 있는 부러운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밀짚모자를 쓰고 동물과 교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19대 대선부터는 후보들이 너 나 없이 반려동물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거나 친동물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현실에서의 정책 실행은 늘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치인들의 공약이 더 실효성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17대 이전에는 기대할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변화가 오는데요, 본인이 공약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자유연대가 SBS와 함께 ‘강아지 공장’ 사건을 폭로하며 요구한 중앙부처에 ‘동물복지 전담부서’설치를 받아들여, 드디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임시 조직으로 출발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 조직으로 확정되며 업무 내용도 확장해나갑니다. 하지만 국민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기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격상, 업무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서 정부 내에서 동물 업무가 탄탄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각오로 새 정부를 맞이합니다.

정부 조직과 정책 실행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집권당이 바뀐다 한들 본래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보다 더 한 발 나아가 탄탄한 조직 정비와 정책 수립이 나와주는 것이 보다 진전된 사회, 정책적으로는 성숙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후원자 및 지지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20대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동물권 신장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집행에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MISSION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



VISION

인간이 관리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며,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인다.

CAMPAIG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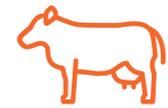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과 사람의 바람직한 공존사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네고양이



농장동물



전시·야생동물



위기동물 대응



동물실험 반대



정책·입법



온센터



교육

*생태적 조화: 인간 또한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동물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윤리적 조화: 인간은 자아가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이웃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1



불법 번식장 구조 & 입양

2021년 1월 경기 광주시 번식장에서 129마리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돈벌이 취급에서 벗어난 구조견들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거쳐 총 117마리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국내 처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만여 건의 유실·유기동물 발생건을 지역, 연령, 품종에 따른 발생과 처리현황 등으로 분석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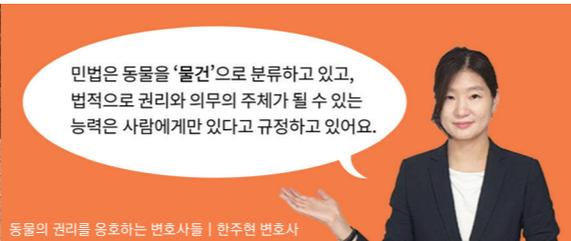
케이지프리 페스티벌

국내 최초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케이지프리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BR코리아(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에 케이지프리를 요구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11번가 희망쇼핑과 함께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기 방지 및 입양 권장을 위해 입양 키트 300개를 제주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자에게 전달했고, 유기방지 캠페인 영상은 2,0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고양이 전문 돌봄시설 착공

고양이 전문 제2온센터가 4월 28일 착공했습니다. 2013년 개관한 국내 최초 동물복지형 보호소인 제1온센터는 개 돌봄으로, 파주 제2온센터는 고양이 돌봄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종 특성에 따라 특화된 복지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활동

'동물=물건'이라는 구시대적 법체계의 변화를 위해 '민법 제84조 다시쓰기'를 추진중입니다. 법무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민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부는 2021년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 중입니다.



고어전문방 학대사건 대응

온라인 채팅방에 모여 고양이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고 실제 학대까지 이루어진 '고어전문방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최초 고발하고 가담자들의 강력 처벌을 위해 1만명 이상의 탄원을 조직했습니다.

동해 사육곰 22마리 생추어리 이주 사업

코로나19로 이주가 막혀버린 22마리 동해 사육곰들의 미국 내 반입 승인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를 진행하는 등 이주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2마리 사육곰들은 22년 3월 최종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1



동물입양

260 마리



구조동물

264 마리



학대 제보 상담

5,026 건



동네 고양이 급식소 보급

50 개



온센터 상시 보호 동물

316 마리



시민 구조 지원

149 마리



뉴스레터 구독자

88,94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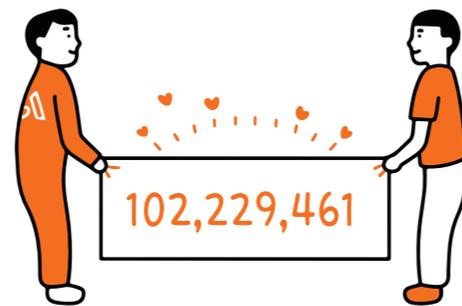
후원 참여자

53,441 명



시민 구조 지원 금액

102,229,461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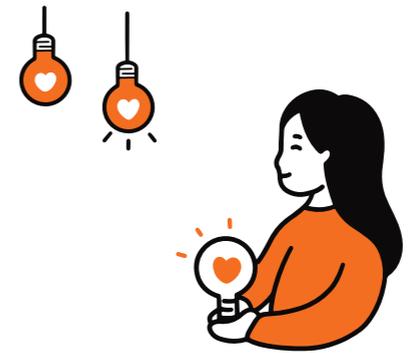


정기 후원자

25,300 명

정기 후원 중 결연 후원자

3,531 명







구조와 학대 대응

인간에 의해 학대 받고,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죽음의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 개선, 체계적인 공적 위기동물 구조 시스템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조 사례 | 총 294건

- 곤지암 불법 번식장 구조
- 태안 애니멀 호더 구조 활동
- 폐환기구 속 고립된 유기견 구조
- 약수동 아파트 내 절벽에 고립된 유기견 구조
- 폐쇄된 지하주차장 8미터 지하에 고립된 길고양이 구조
- 목줄 외상 유기견 5마리 구조
- 내부순환로 교각 아래 고립된 길고양이 구조
- 인천 청라 재개발 지역 탈장 유기견 구조
- 독립기념관 목줄 외상 유기견 구조
- 포천 앞다리 절단, 눈 실명 고양이 구조
- 화성시 전신 피부병 유기견 구조
- 칠곡 주민에게 위협받는 유기견 구조

학대 대응

- 창원 승합차로 유기견을 밟아 죽인 학대 사건
- 창원 트럭 뒤에 개를 매달로 달린 학대 사건
- 상주 SUV 차량 뒤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인 학대 사건
- 담뱃불로 지져 고양이를 학대한 사건
- 학대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총 82,371명 서명
- 직접 고발한 8건 사건 중 수사종료 3건, 벌금형 2건, 처벌결과대기 1건, 징역 1건, 기소유예 1건





'쓰담쓰담' 시민 구조 지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기 동물에 대하여 시민 구조를 지원합니다. 21년부터 동물자유연대 후원회원의 지원폭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49마리의 동물이 한 해 쓰담쓰담 사업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 보급사업

포스코건설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생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쓰담쓰담 지원 사례 | 총 149마리

- 고양이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유기된 '블루'
- 길가에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던 아기고양이 '유월이'
- 낙상 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채로 발견된 '애기'
- 버려진 채 실명 위기에 놓인 '류동이'
- 열악한 환경 속 피를 흘리고 있던 '히릿'
- 침을 흘리고, 밥을 제대로 못먹으며 살아갔던 '삼순이'
- 세상을 피해 주차장 배관 위에서 살던 '하늘이'
- 6년이상 다친 채 방치된 '인삼이'
- 하루 아침에 후지마비가 된 '양말이'
- 다리를 잃고 집사를 얻은 '그랑베르'
- 기형으로 태어나 길에서 살아남은 '별님이'
- 큰 부상을 입고 살기 위해 찾아온 '제비'





불법 번식장 동물의 보호와 입양

2021년 1월, 경기 광주의 곤지암 불법 번식장에서 129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구조 동물의 생활공간 마련, 위탁처 섭외, 진료 및 처치, 수술을 모두 진행하였고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를 거쳐 총 117마리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온센터 부속 동물병원 재정비

2018년 1월 이후 상근 수의사 부재로 보호 동물의 진료, 처치, 수술을 내부에서 진행하지 못했으나 2021년 하반기에 원장, 수의사 채용으로 보호 동물의 원활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호 동물의 행동 치료와 행동 교정

동물 행동치료 수의사의 영입으로 의료와 훈련이 결합된 사회화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입양 이후 발생하는 입양 동물의 문제행동을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개선하여 파양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의 안정적인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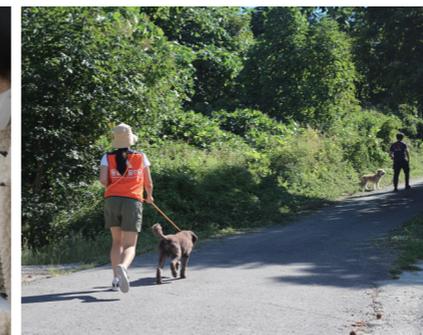
해외입양 후보 동물 선정, 성격 및 사회화테스트, 훈련, 입양 준비와 진행에 따르는 절차가 안정적인 프로세스로 정착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70마리의 개가 캐나다에 입양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고양이 전문 돌봄시설 착공

고양이 전문 제2온센터가 4월 28일 착공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제1온센터는 개 돌봄으로, 파주 제2온센터는 고양이 돌봄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종 특성에 따라 특화된 복지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시 운영 캠페인의 정착

코로나 상황으로 매년 개최하였던 '입양 동물의 날'과 '결연의 날'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소수의 인원이 꾸준히 참여하는 '온센터에 온데이', '산책메이트' 행사를 통해 회원,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만여 건의 유실·유기동물 발생건을 지역, 연령, 품종에 따른 발생과 처리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도입, 유실·유기동물 정책은 사후관리에서 발생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동물=물건'이라는 구시대적 법체계의 변화를 위해 '민법 제84조 다시쓰기'를 추진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무부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부는 2021년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 중입니다.

각종 연구조사

국내 최초로 도축 및 입식 산란계 마리수, 동물복지농가 산란계 비율, 달걀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도태되는 수평아리 수를 논리적으로 추산하고,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수평아리 도태 금지 법률 및 관련 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수의법의학 필요성,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향, 동물실험 실태조사 분석,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분석까지 5편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보궐선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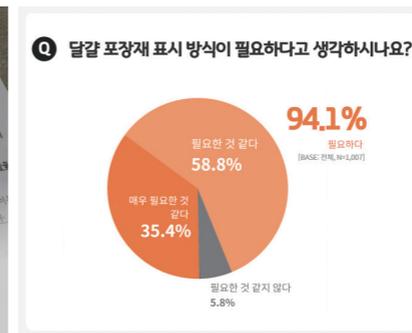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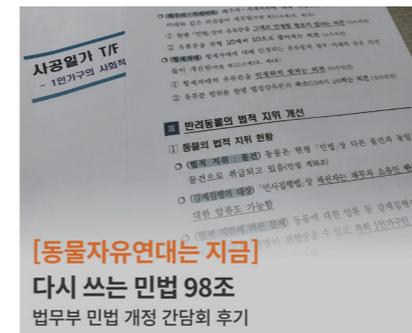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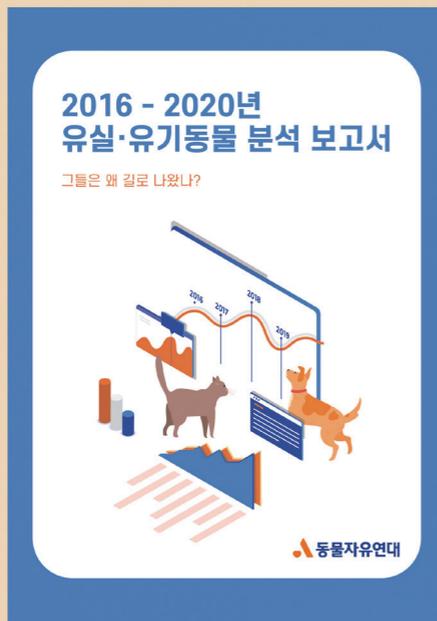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 지자체장 선거는 동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6대 영역, 13개 정책, 20개 동물복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결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대부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에서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감시와 요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물학대 대응체계 정비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함께 동물학대 수사 및 처리실태에 대해 현직 경찰 3,235명, 동물보호감시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동물학대 감시 - 신고 - 수사 및 조사 - 피학대 동물 보호 - 사후관리까지 문제점과 보완점을 짚어보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제 도입요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케이지프리 달걀에 대한 지불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 현 난각표시제의 한계와 케이지프리 달걀 선택에 있어 제약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케이지프리 달걀로의 소비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포장재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개식용 종식 및 도살 금지 캠페인

식품위생법상 개식용이 불법임을 알리고 전국 3대 개시장 중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시장 철폐를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음식 배달업 입점 업체 가운데 개고기 판매 업체를 규제하고 각 기업별 입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초복과 말복에는 각각 칠성시장과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식용 종식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개식용 종식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고양이 지원 및 급식소 보급

작년에 이어 포스코건설과 함께 동네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보급 수량 역시 14개소에서 50개소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안양 재개발 지역과 서울숲에 구조 및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였고, 동네고양이 급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상 고양이 학대 대응

온라인 채팅방에 모여 고양이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고 실제 학대까지 이루어진 '고어전문방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최초 고발하고 가담자들의 강력 처벌을 위해 1만명 이상의 탄원을 조직했습니다. 현재 직접 학대를 자행한 피고인의 2심이 예정되어 있어 계속 주시하며 엄중 처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과다사육시설 개선 및 구호

폭력적인 가해 만큼이나 동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방지 확대. 이를 개선하고자 동물을 과다사육하는 현장의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당진, 태안, 양주 등의 과다사육현장에 방문해 견사를 설치하고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현장은 지역 시민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중입니다.

동물 유기 예방 캠페인

11번가와 함께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기 방지 및 입양 권장을 위해 입양 키트 300개를 제주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자에게 전달했고, 유기방지 홍보 영상은 2,0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간의 바람직한 협력 체계를 이룸으로써 시민들에게 동물 유기 문제점과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사업 개선 활동

위탁 운영 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개선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운영시간 연장, 봉사자 참여 확대, 직영보호소로의 전환 약속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업 케이지프리 선언

평생 알 낳는 기계로 살아가는 산란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업의 케이지프리 선언 촉구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국내 백화점 중 최초로 2023년까지 자사에서 유통하는 달걀을 전면 케이지프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조금 더 많은 닭들이 배터리케이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케이지프리 선언기업 모니터링

이미 케이지프리를 선언한 풀무원, 스타벅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케이지프리를 선언한 당시 약속한 목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지프리 페스티벌

좁은 케이지에서 그저 '알 낳는 기계'처럼 다뤄지는 닭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케이지프리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최초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케이지프리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샌드아트, 비누 만들기도 해보고, 한목소리로 BR코리아(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에 케이지프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 사육곰 22마리 생추어리 이주 사업

2020년 구조했으나 코로나19로 검역 단계에서 이주가 막혀버린 22마리 동해 사육곰들의 미국 내 반입 승인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를 진행하는 등 이주를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해곰들의 미국 생추어리 이주는 국내 다른 곰들의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육곰 보호시설 마련 촉구 활동

그 동안은 사육곰 불법 증식이 밝혀지더라도 보호할 공간이 없어 불법을 자행한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예산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그 결과 예산이 통과되어 현재 서천과 구례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 중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불법을 자행한 사육곰 농장주를 고발하여 현재 공판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 남은 300여마리의 사육곰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래류 전시 금지 사업

수족관에서 고래류 폐사가 잇따를 때마다 현장에 달려가 방류를 촉구하며 바다쉼터 조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는 방류를 약속한 롯데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기술위원회에 참여하며, 바다쉼터 조성 후보지 검토를 위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바다쉼터 마련에 제동이 걸렸으나 해양수산부의 의지와 단체의 적극적 요구가 더해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보고



2021 수입

2021년은 일반후원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제2온센터 설립으로 인한 집중 모금 캠페인 운영, 기업 협업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진료수익이 예년과 달리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처음으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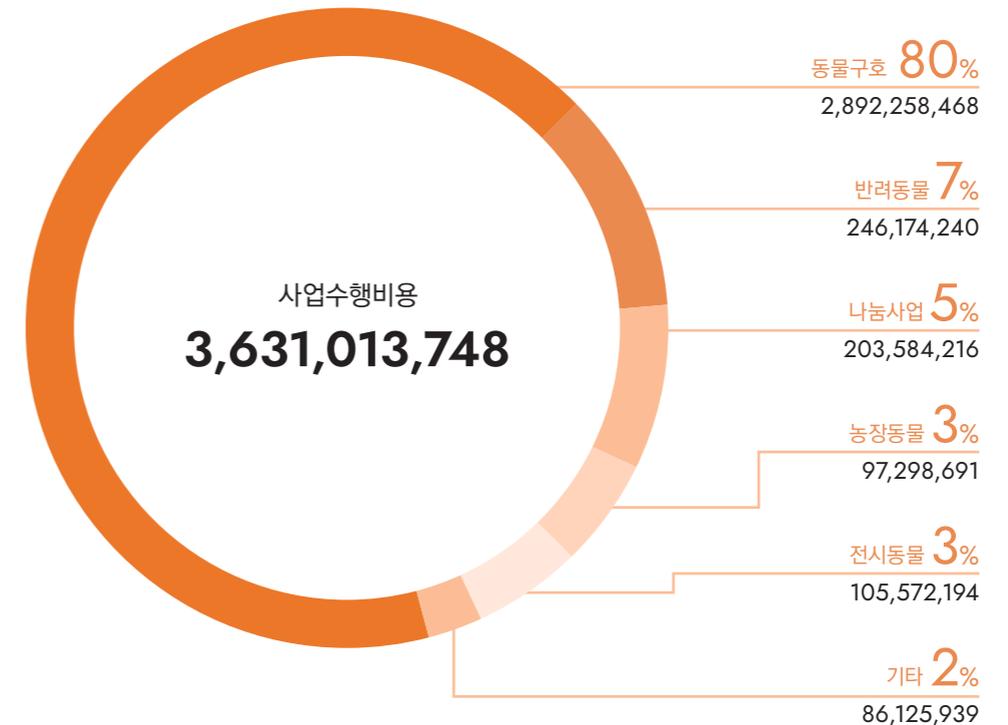
구분	금액	
사업수익	기부금 수입	7,177,549,553
	- 정기후원회비	5,144,456,500
	- 일반후원금	1,796,746,338
	- 물품후원	236,346,715
	진료수익	8,993,800
	이자수익	43,293,675
사업 외 수익	사업외수익	85,679,373
수입합계		7,315,516,401

2021 지출

사업수행비용 가운데 동물구호사업에 전체 사업수행비용의 80%를 지출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특이사항으로는 22마리 사육곰 이주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별예비비로 편성해두었던 150,000,000원이 코로나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22마리 사육곰 생추어리 구출 프로젝트는 2022년 3월 진행되어 22마리 사육곰 모두 구조 완료되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이주비용 집행 부분은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의 지출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공익목적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3,631,013,748
	- 반려동물사업	246,174,240
	- 농장동물사업	97,298,691
	- 전시동물사업	105,572,194
	- 동물구호사업	2,892,258,468
	- 나눔사업	203,584,216
	- 기타사업	86,125,939
	모금비용	643,188,600
기타	일반관리비용	217,501,846
	사업외비용	57,647,076
	자산성 지출	119,159,640
	건설중 자산	1,788,100,000
	지출합계	6,456,610,910

직접적인 사업수행비용으로 3,631,013,748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양이 전문 보호소인 파주소재 제2온센터 건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1,788,100,000원을 합하면 84%이상의 비용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제2온센터 건립은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되는 프로젝트로서, 2022년 비용 집행 부분은 2022년 회계연도의 지출로 잡힐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QR코드를 통해 2021 동물자유연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당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